



여의도연구원

국민행복을 디자인합니다

Vol.2016-09

# 여 연 포 커 스

YDI FOCUS

발행일 2016년 10월 13일 (목)

〈 2016 미국대통령 선거 ④ 〉

## 'Swing States' 가 대선의 승패를 가른다

### - 목 차 -

要 旨 .....	i
I. 미국 대통령선거제도와 접전주의 의미 .....	1
II. 2016 미국 대선과 접전주 .....	4
III. 접전주의 과거 선거결과(1992~2012) .....	5
IV. 접전주의 현재 판세 .....	10
V. 1차 후보토론의 내용과 결과 .....	12
VI. 앞으로의 전망과 한국에의 시사점 .....	15



〈2016 미국대통령 선거 ④〉

# 'Swing States' 가 대선의 승패를 가른다

작 성 유 성 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담 당 유 성 현 (여의도연구원 연구원)

2016 미국 대통령 선거현황 및 정책이슈 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총 6차에 걸쳐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본 4차 보고서는 미국 대선 주요 접전주에서의 양당 후보 지지율과 1차 후보토론 결과를 분석한 글로,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여의도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연속보고서 발간 현황 - 1차 정권 재창출인가, 정권 교체주기인가?  
2차 미국 대통령 선거 '이슈와 정책'  
3차 美 대선, 이번 일어날까



여의도연구원



## 《 要 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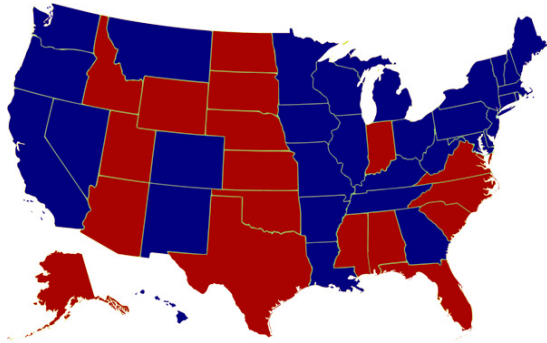
- 미국 대통령 선거는 연방제 국가의 특성상 개별 주 단위의 선거결과에 대한 집합적 산출의 모습을 띠고 있으며, 이는 직접선거와 간접선거의 모습을 혼합한 형태임
- 개별 주 단위의 유권자 투표결과가 각 주의 승자를 결정하고 승자가 해당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의 수를 모두 가져가는 승자독식제(winner-takes-all system: 메인과 네브래스카는 예외)이며, 각 주에 할당된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수(270표 이상)를 획득한 후보가 최종승자가 됨
- 직접선거와 간접선거를 혼합한 이러한 선거제도는 후보자들의 선거캠페인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침. 즉, 후보자들은 각 주의 판세를 파악하고 불확실성이 큰 주(접전주)들을 중심으로 선거전략을 구성함
  - 접전주란 고정된 선호후보가 존재하지 않고 선거 마다 그 결과가 유동적인 주를 의미함. 통상 접전주의 판별은 “해당 주의 유권자 여론조사(statewide opinion polls), 정당등록유권자수(political party registration number), 그리고 이전 선거에서의 결과” 등 세 가지 요인에 근거해서 이루어짐
  - 결국 접전주(swing state; battleground state; purple state)에서의 승리가 중요해지는 이유는 연방제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독특한 선거제도에 있으며 접전주에서의 선거결과는 선거전체적인 판세를 가늠할 수 있는 일종의 리트머스의 역할을 한다고 봄
-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를 현재 대중매체에서 회자되고 있는 11개의 접전주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 우선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으로 콜로라도, 미시간, 뉴햄프셔,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위스콘신 주 등 여섯 지역들을 꼽을 수 있음
  -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으로는 아이오와 한 주에 그치고 있으며, 플로리다,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주 등 네 개 지역은 양 당이 박빙으로 각축을 벌이고 있음

- 결국 접전주들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전체적인 판세는 민주당 클린턴 후보가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보임. CNN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민주·공화 양당은 확고한 우세지역에서 각각 200, 163표의 선거인단 득표수를 확보한 가운데, 근소한 우세지역에서 민주당 72표, 공화당 33표를 더하고 있음. 우위를 판별하기 어려운 박빙지역의 선거인단 수는 70표로 추산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은 민주당이 현재 판세만으로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공화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박빙지역에서 압도적인 캠페인을 보이고 민주당 우세지역 1~2곳을 빼앗아 와야 함을 의미함
- 9월 26일(月) 저녁 뉴욕 Hofstra 대학에서 개최된 1차 후보토론은 두 대통령 후보가 여러 현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논쟁하는 자리로 후보의 자질과 준비 상황을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 CNN이 토론 직후 (사전에 섭외된 후 사전조사를 실시한) 토론회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62%의 응답자가 클린턴이 더 잘 했다고 답하고 트럼프가 잘했다는 응답은 27%에 그쳐 클린턴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함.
- 단, 과거 후보토론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토론회에서 우호적인 평가를 받은 후보가 최종 승자가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여러 차례 목격된 바 있음. 예를 들어, 2004년 민주당 케리는 공화당 부시 대통령을 토론회에서 압도하였지만 선거에서 패배하였고, 2012년 오바마 대통령도 1차 토론에서 공화당 롬니에게 압도적인 격차(25%:67%)로 밀렸지만 이후 토론회에서 선전하며 최종적인 승자가 될 수 있었음
- 결국 클린턴의 압도적인 우세로 나타난 이번 토론의 결과는 클린턴에게 긍정적인 신호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이제 첫 번째 토론회를 마친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많은 유권자들이 이미 지지후보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종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가늠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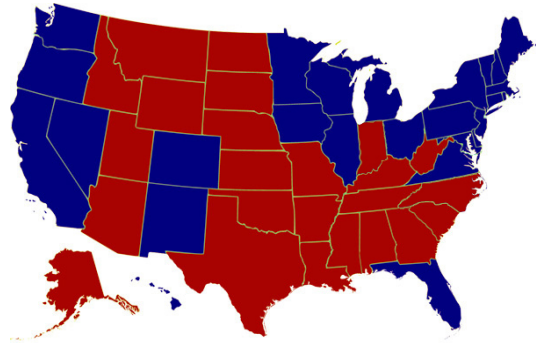
# I. 미국의 대통령선거제도와 접전주의 의미

- 미국 대통령 선거는 연방제 국가의 특성상 개별 주 단위의 선거결과에 대한 집합적 산출의 모습을 띠고 있으며, 이는 직접선거와 간접선거의 모습을 혼합한 형태임
- 개별 주 단위의 유권자 투표결과가 각 주의 승자를 결정하고 승자가 해당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의 수를 모두 가져가는 승자독식제(winner-takes-all system: 메인과 네브래스카는 예외)이며, 각 주에 할당된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수(270표 이상)를 획득한 후보가 최종승자가 됨
- 이러한 선거제도는 건국 초기 연방제도를 형성함에 있어서 주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유권자의 의지를 반영하려는 이중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절충적인 결과물임
- 직접선거와 간접선거를 혼합한 이러한 선거제도는 후보자들의 선거캠페인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침. 즉, 후보자들은 각 주의 관세를 파악하고 불확실성이 큰 주들을 중심으로 선거전략을 구성함
- 결국 접전주(swing state; battleground state; purple state)에서의 승리가 중요해지는 이유는 연방제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독특한 선거제도에 있음
- 접전주의 중요성은 1980년대 본격적으로 선거결과에 투영된 미국 정당정치의 재편성 이후, 양극화가 강화됨에 따라 더욱 증대됨. 다시 말해, 양극화로 인해 민주당 선호의 주들과 공화당 선호의 주들이 분명해짐에 따라 접전주에서의 결과가 선거의 최종승자를 결정하는 경향이 강해짐
- 지난 20여 년간 미국 대통령선거의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음 (파란색은 민주당 승리지역, 붉은색은 공화당 승리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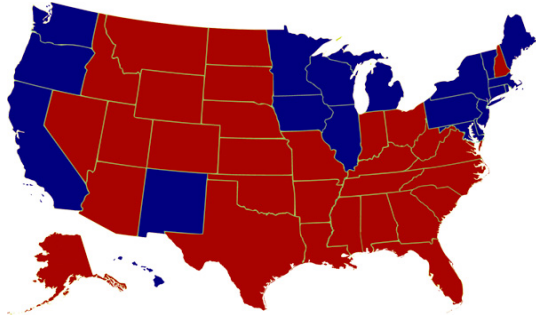
※ 출처: <http://www.presidency.ucsb.edu/elections.ph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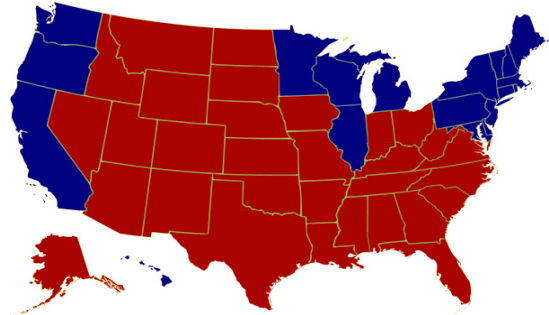
199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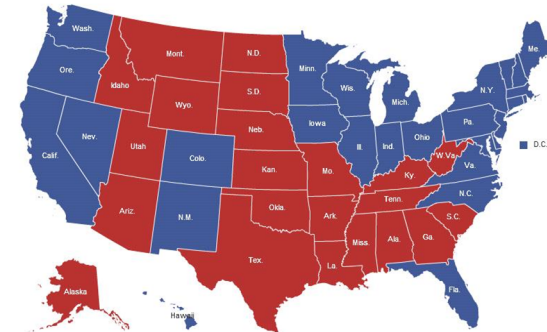
199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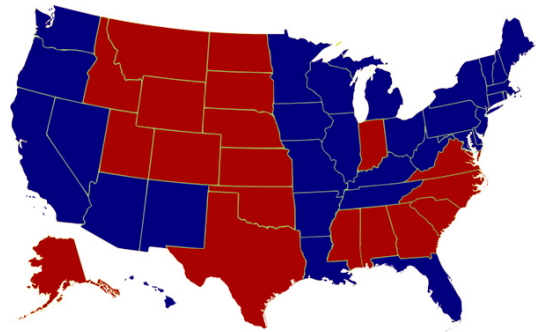
2000년



2004년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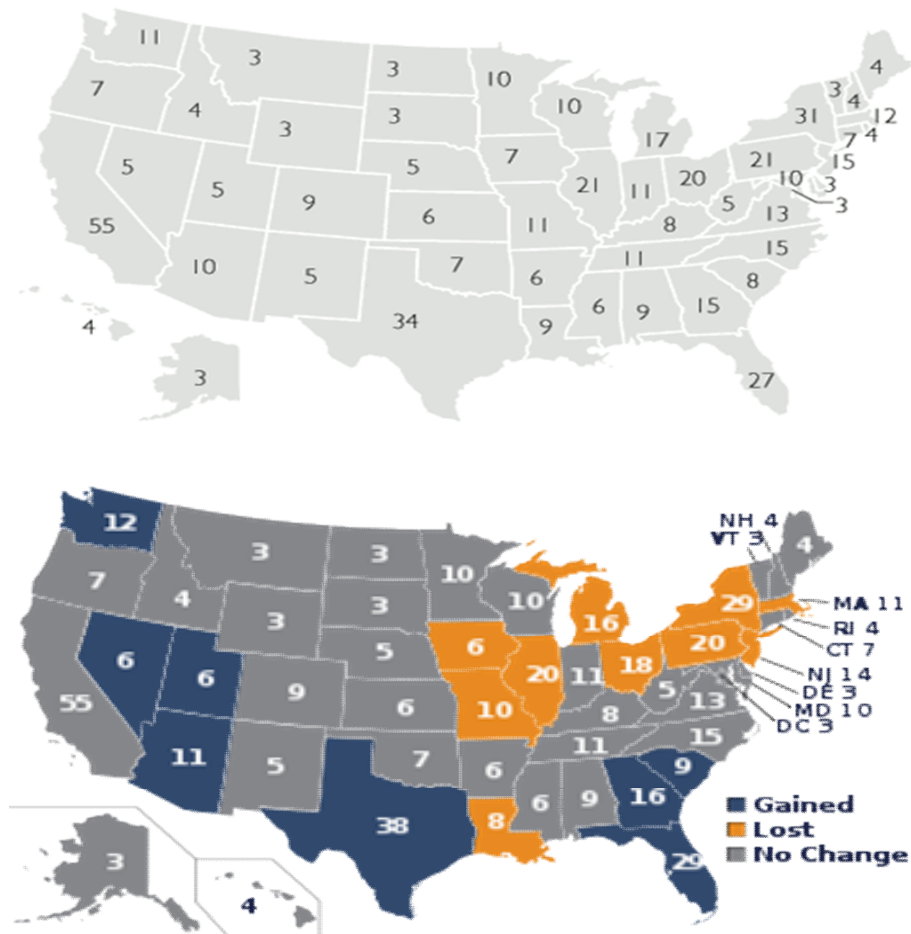
2012년

- 2012년 이후 선거에서는 10년마다 수행되는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으로 각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의 수가 변화한 상황 속에서 치러짐
- 선거인단 수가 늘어난 주들은 공화당의 텃밭인 텍사스,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로키산맥지역인 유타, 애리조나, 네바다, 민주당 지지성향의 워싱턴 주, 그리고 대표적인 접전주로 일컬어지는 플로리다 주 등
- 선거인단 수가 줄어든 주들은 민주당 강세지역인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일리노이 주들과 중서부지역의 오하이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아이오와, 미주리 주 그리고 공화당 강세지역인 루이지애나 주 등



- 전체적으로 선거구 재획정 결과는 공화당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선거구 재획정의 권한이 주 의회에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재획정을 앞둔 2010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연방차원 뿐 아니라 주차원의 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예견된 결과임
- 그러나 2012년 오바마의 성공적인 재선에서 알 수 있듯이 전국적인 선거에서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재획정이 반드시 공화당의 우세로 이어지지는 않음
- 다만 주목할 내용은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의 수가 변화함에 따라 선거인단의 수가 증가한 점전주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

[그림 1] 선거구재획정에 따른 선거인단 수의 변화: 2000년대와 2010년대



## Ⅱ. 2016 미국 대선과 접전주

- 접전주란 고정된 선호후보가 존재하지 않고 선거 마다 그 결과가 유동적인 주를 의미함. 통상 접전주의 판별은 “해당 주의 유권자 여론조사(statewide opinion polls), 정당등록유권자수(political party registration number), 그리고 이전 선거에서의 결과” 등 세 가지 요인에 근거해서 이루어짐
- 그러나 접전주의 구분은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선거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짐. 특히, 정당정치가 불안정해지는 시기에 그 변화가 두드러짐. 예를 들어, 오하이오, 코네티컷, 인디애나, 뉴저지, 뉴욕 등은 1888년 대선의 접전주들이었으며, 1960년 대선에서는 일리노이와 텍사스, 2000년 대선에서는 플로리다, 2004년은 오하이오가 최종승자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최근의 선거에서는 플로리다,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등이 전통적인 접전주로서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중서부 지역에서 접전의 양상을 보이는 경향이 많았음. 최근 들어 선거 유동성은 더욱 심해져서 로키산맥지역의 주들 역시 접전주로 분류되어 그 수가 늘어나고 있음
- 2016년 8월 폴리τικο(Politico)는 2016년 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11개 주를 거명함(Colorado, Florida, Iowa, Michigan, Nevada, New Hampshire, North Carolina, Ohio, Pennsylvania, Virginia and Wisconsin)
- 11개의 접전주는 13개에 달했던 2012년의 경우(워싱턴포스트 기준)와 비교해서 그 수가 줄어든 것임. 2012년 접전주로 분류되었던 인디애나 주는 공화당의 우세지역으로, 뉴멕시코 주는 민주당이 확실한 우세를 보여 제외되었음
- 이를 재구분하면 중서부 지역을 포함한 전통적인 접전주 6개(Florida, Ohio, Pennsylvania, Iowa, Michigan, Wisconsin)와 신흥 접전주 5개(Colorado, Nevada, New Hampshire, Virginia, North Carolina)로 나눌 수 있음

### Ⅲ. 접전주의 과거 선거결과(1992~2012)

- 접전주에서의 선거결과는 선거전체적인 판세를 가늠할 수 있는 일종의 리트머스의 역할을 한다고 봄
- 따라서 지난 여섯 차례의 대통령선거에서 이들 11개 접전주의 결과를 살펴보는 것은 미국 대선에서 전체적인 판세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편, 2016년 대선의 판세를 전망할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줌
- 다음의 표들은 폴리티코(Politico)에서 선별한 11개 주를 전통적인 접전주, 중서부지역, 신흥접전주로 세분하고 지난 여섯 차례의 대통령선거결과를 정리한 것임
- 최근 여섯 차례의 전체적인 선거결과는 유권자득표율을 기준으로 1992년을 시점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43.0 對 37.4, 49.2 對 40.7, 48.4 對 47.9, 50.7 對 48.3, 52.9 對 45.7, 51.1 對 47.2퍼센트를 획득한 바 있음

<표 1> 전통적인 접전주들에서의 선거결과

연도	플로리다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민주	공화	기타	민주	공화	기타	민주	공화	기타
1992	40.9	39.0	19.8	40.2	38.3	21.0	45.1	36.1	18.2
1996	48.0	42.3	9.1	47.4	41.0	10.7	49.2	40.0	9.6
2000	48.8	48.8*	1.6	46.4	50.0	2.5	50.6	46.4	2.1
2004	47.1	52.1		48.7	50.8		50.9	48.4	
2008	51.0	48.2		51.5	46.9		54.3	44.0	
2012	50.0	49.1		50.7	47.7		52.1	46.7	

주 : 수치는 각 정당후보의 유권자 득표율(%)임. \*500여 표차로 G. W. Bush가 승리  
 자료출처 : <http://www.presidency.ucsb.edu/elections.php>

- 전통적인 접전주인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그리고 펜실베이니아에서 지난 여섯 차례 대선의 결과는 플로리다의 경우 민주당 우세지역에서 2000년 이후 선거부터 접전의 양상이 두드러졌고 이러한 양상은 2004년, 2008년 선거에서는 매번 승자가 바뀌었음. 2012년 선거에서는 오바마가 1퍼센트 포인트 이내의 격차로 근소하게 승리하였으나 이번 선거에서 박빙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오하이오 주는 클린턴 시기에 민주당 우세지역이었다가 2000년대 들어 부시가 두 차례의 선거에서 승리하였으나, 2008년, 2012년 선거에서는 오바마를 선택하였음
- 잘 알려진 것처럼 오하이오 주는 역대 대선의 승자와 가장 높은 연관관계를 보인바 있음. 민주당의 경우 오하이오에서 패배하고도 선거에서 승리한 사례는 1960년 케네디가 유일하며 공화당의 경우는 그러한 전례가 없음
- 위 두 주들이 지속적인 접전주로 남아있음과는 달리 펜실베이니아 주는 지난 여섯 차례의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였음. 그러나 그 격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8년 선거에서 확대되었다가 2012년 선거에서는 다시 줄어드는 양상을 보임
-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접전주들 중 플로리다와 오하이오가 이번 선거에서도 중요한 경합지역으로 치열한 경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

<표 2> 중서부지역에서의 선거결과

연도	아이오와			미시간			위스콘신		
	민주	공화	기타	민주	공화	기타	민주	공화	기타
1992	43.3	37.3	18.7	43.8	36.4	19.3	41.1	36.8	21.5
1996	50.3	39.9	8.5	51.7	38.5	8.7	48.8	38.5	10.4
2000	48.5	48.2	2.2	51.3	46.1	2.0	47.8	47.6	3.6
2004	49.2	49.9		51.2	47.8		49.7	49.3	
2008	53.7	44.2		57.4	41.0		56.2	42.3	
2012	52.0	46.2		54.2	44.7		52.9	46.0	

- 아이오와, 미시간, 위스콘신 주 등 중서부지역의 세 개 지역은 지난 여섯 차례의 대선에서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우위를 보여 왔음. 그러나 2008년 크게 확대되었던 민주당의 우위는 2012년 선거에서 줄어들었으며 이번 선거에서도 경합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 세 지역 중 미시간 주는 미국 경제의 침체로 미국에서도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지역이었으나,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 자동차 산업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한 결과 최근 경제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음

- 아이오와와 위스콘신 주는 전반적인 민주당의 우세 속에서 최근 두 차례의 선거에서 상당한 격차로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였음. 다만 공식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의 특성상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힐러리 클린턴에게로 그대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함
- 정리해 보면, 중서부지역은 2010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압승에 크게 기여한 지역으로 공화당이 내년 대선에서도 비슷한 성과를 내기 위해 집중할 것 이지만 인디애나 주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민주당에 우호적인 지역으로 판단됨. 물론 이러한 지지성향을 클린턴 후보가 효과적으로 동원해낼 수 있을지 두고 볼 필요가 있음

**<표 3> 신흥 접전주에서의 선거결과: 로키산맥지역**

연도	콜로라도			네바다		
	민주	공화	기타	민주	공화	기타
1992	40.1	35.9	23.3	37.4	34.7	26.2
1996	44.4	45.8	6.6	43.9	42.9	9.5
2000	42.4	50.8	5.3	46.0	49.5	2.5
2004	47.0	51.7		47.9	50.5	
2008	53.7	44.7		55.1	42.7	
2012	51.5	46.1		52.4	45.7	

- 신흥 접전주로 분류되는 지역들 중 콜로라도 주를 먼저 살펴보면, 1992년 클린턴이 승리한 이후 2004년까지 공화당이 연이어 승리하다가 2008년 민주당의 오바마가 압승을 거두고 2012년에도 상당한 격차로 승리하였음. 지속적인 경제침체 극복의 방편으로 2014년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진보성향의 정책을 펼치고 있어 민주당에 보다 친화적인 지역으로 보임
- 네바다 주의 경우 공화당 우세지역이 2008년 선거를 기점으로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음. 1990년대의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 하였으나 페로효과와 결과로 이해되며, 현재 미국에서 실업률이 높은 지역 중 하나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고전이 예상되나 중남미계 이민자들의 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 전체적으로 보아 로키산맥지역은 선거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움. 콜로라도와 네바다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의 수는 모두 15표(9+6)로 전국적인 판세가 접전의 양상을 보일 경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음

<표 4> 신흥 접전주에서의 선거결과: 대서양 연안

연도	뉴햄프셔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민주	공화	기타	민주	공화	기타	민주	공화	기타
1992	38.9	37.6	22.6	40.6	45.0	13.6	42.7	43.4	13.7
1996	49.3	39.4	9.7	45.1	47.1	6.6	44.0	48.7	6.7
2000	46.8	48.1	3.9	44.4	52.5	2.2	43.2	56.0	0.0
2004	50.2	48.9		45.5	53.7		43.6	56.0	
2008	54.4	44.7		52.6	46.3		49.7	49.4	
2012	52.0	46.5		51.2	47.3		48.4	50.4	

- 또다른 신흥 접전주들인 뉴햄프셔,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주 역시 이번 대선의 승부를 가늠할 중요한 주들로 생각됨
- 뉴햄프셔 주의 경우, 전통적으로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나 2000년대의 선거결과는 박빙의 모습을 보임(사실 1990년대의 선거에서도 페로효과를 감안하면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고 말할 수 없음). 2004년 케리가 승리하고 2008년 오바마가 그 격차를 크게 벌였으나, 2012년 선거에서 격차가 줄어들었음
- 버지니아 주는 남부의 핵심지역으로 1968년 대선 이후 공화당의 확고한 우세지역으로 자리매김하다 2008년 오바마가 비교적 큰 격차로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두고 2012년에도 승리를 이어간 지역임. 이 지역에 할당된 13표의 선거인단은 선거결과에 매우 중요하며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하는 지역임
- 이 지역의 주지사를 역임하고 현재 상원의원인 케인(Tim Kaine)을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고 공을 들이고 있어 민주당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음
- 노스캐롤라이나 주 역시 1976년 카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968년 대선 이후 공화당의 확고한 우세지역으로 여겨졌으나, 2008년 오바마가 근소한 차이로

신승(14,000표차)을 거두고 2012년 선거에서도 박빙의 결과를 보임으로써 경합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음

- 최근 이 지역 샬럿(Charlotte)에서 발생한 백인경찰의 흑인 총격사건으로 인종갈등이 격렬하게 불거져 주 비상사태가 선포된 바 있음.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흑백갈등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이나 이 사건으로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향할 것이라고 예측됨
-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세 지역은 현재로선 뉴햄프셔 주는 민주당,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공화당, 그리고 버지니아 주는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IV. 접전주의 현재 판세 : 클린턴이 우세해

-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를 현재 대중매체에서 회자되고 있는 11개의 접전주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판세를 가늠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5> 11개 접전주에서의 현재 판세

접전주	민주	공화	격차	접전주	민주	공화	격차
콜로라도	44.0	38.8	+5.2	노스 캐롤라이나	43.2	44.0	-0.6
플로리다	44.4	43.6	+0.8	오하이오	41.2	43.4	-2.2
아이오와	39.0	44.2	-5.2	펜실베이니아	45.8	40.6	+5.2
미시간	43.0	36.4	+6.6	버지니아	44.4	37.6	+6.8
네바다	42.8	42.8	0.0	위스콘신	45.8	40.0	+5.8
뉴햄프셔	45.2	36.6	+8.6				

주 : 수치는 해당 주의 최근 다섯 차례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는 민주당 우세, -는 공화당 우세를 나타냄

출처 : 폴리τικο([www.politico.com/2016-election/swing-states#ixzz4LMatZIKp](http://www.politico.com/2016-election/swing-states#ixzz4LMatZIKp))

- 우선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으로 콜로라도, 미시간, 뉴햄프셔,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위스콘신 주 등 여섯 지역들을 꼽을 수 있음
-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으로는 아이오와 한 주에 그치고 있으며, 플로리다,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주 등 네 개 지역은 양 당이 박빙으로 각축을 벌이고 있음
- 박빙의 판세를 보이는 지역들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본선 캠페인 기간 동안 각 정당의 선거전략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역시 또다른 변수가 될 것임
- 선거전략의 측면에서 각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의 수가 판세만큼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임. 즉, 박빙의 4개 지역에서 6표가 할당된 네바다 주는 선거전략의 주요한 거점으로 선택되지 않을 공산이 크며 캠페인 기간 내내 정당의 모든 동력들은 플로리다(29표), 오하이오(18표), 노스캐롤라이나(15표)



주와 같이 상대적으로 많은 선거인단의 수를 가진 지역에 집중될 것임. 특히, 가장 최근의 선거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주가 핵심적인 접전주임

- 결국 접전주들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전체적인 판세는 민주당 클린턴 후보가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보임. CNN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민주·공화 양당은 확고한 우세지역에서 각각 200, 163표의 선거인단 득표수를 확보한 가운데, 근소한 우세지역에서 민주당 72표, 공화당 33표를 더하고 있음. 우위를 판별하기 어려운 박빙지역의 선거인단 수는 70표로 추산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은 민주당이 현재 판세만으로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공화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박빙지역에서 압도적인 캠페인을 보이고 민주당 우세지역 1~2곳을 빼앗아 와야 함을 의미함
- 결국 남은 관전 포인트는 열세에 처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남은 캠페인 기간 동안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가 이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방어해내느냐 라고 보임

## V. 1차 후보토론의 내용과 결과

- 9월 26일(月) 저녁 뉴욕 Hofstra 대학에서 개최된 1차 후보토론은 두 대통령 후보가 여러 현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논쟁하는 자리로 후보의 자질과 준비 상황을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 예정된 90분을 넘겨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후보토론에서는 세금과 일자리 등 경제현안, 인종갈등과 이민이슈, 안보와 테러 등 다양한 현안들이 등장하였는데 전체적으로 클린턴이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던 반면, 트럼프는 시종일관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발언 중간에 여러 차례 끼어들고 사회자와 언쟁을 벌이는 등 상대적으로 수세에 몰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토론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와 대중매체의 분석은 1차 토론에서 클린턴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모습을 보였다고 공통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CNN이 토론 직후 (사전에 섭외된 후 사전조사를 실시한) 토론회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62%의 응답자가 클린턴이 더 잘 했다고 답하고 트럼프가 잘했다는 응답은 27%에 그쳐 클린턴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함. 이런 결과는 사전조사에서 이미 확인된 것이었지만 토론 이후 조사에서는 그 격차가 더욱 늘어남
- 세부 현안에 따른 평가에 있어서도 테러리즘과 외교정책에 있어서 클린턴이 54, 62%의 응답자에게서 트럼프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은 반면, 트럼프가 우세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43, 35%에 그침. 경제이슈에 있어서는 두 후보에 대한 평가가 51:47로 나타난 상대적으로 박빙의 모습을 보였음
- 아래 <표 6>에 제시된 것처럼 후보 자질과 관련한 질문들에 있어서도 클린턴 후보의 우세는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6> 후보자질에 대한 토론 시청자 평가

질문 항목	클린턴	트럼프
더 강한 지도자로 여겨짐	56	39
더 진실되고 솔직함	53	40
자신의 입장을 더 분명히 제시함	66	27
대통령으로 다룰 현안을 더 잘 제시함	57	35
이슈에 대한 더 높은 이해를 보임	68	27

주 : 수치는 해당 질문에 대한 응답비율(%)

출처 : CNN/ORC Post-debate Poll

- 이같은 결과는 1차 토론에서 클린턴이 트럼프를 압도하였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 다만 이러한 결과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 인지는 분명하지 않음
- 우선 토론회가 응답자의 지지후보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클린턴 후보를 더 지지할 것 같다”는 응답자가 34%로 트럼프 후보를 더 지지할 것 같다는 응답자 비율 18%의 두 배 가까이 나타났지만,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47%)이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답함
- 이는 응답자 중 많은 이들이 이미 지지후보를 결정하였고 이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게 굳어져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은 관련 연구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 왔음
- 또한 과거 후보토론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토론회에서 우호적인 평가를 받은 후보가 최종 승자가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여러 차례 목격된 바 있음. 예를 들어, 2004년 민주당 케리는 공화당 부시 대통령을 토론회에서 압도하였지만 선거에서 패배하였고, 2012년 오바마 대통령도 1차 토론에서 공화당 롬니에게 압도적인 격차(25%:67%)로 밀렸지만 이후 토론회에서 선전하며 최종적인 승자가 될 수 있었음
- 더불어 조사대상의 대표성의 문제도 지적될 수 있음. 해당 조사의 응답자 중 민주당 지지자들이 일반유권자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민주당에 편향된 응답성향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음

- 결국 클린턴의 압도적인 우세로 나타난 이번 토론의 결과는 클린턴에게 긍정적인 신호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이제 첫 번째 토론회를 마친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많은 유권자들이 이미 지지후보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종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가늠하기 어려움
  
- 그럼에도 이번 후보토론의 결과는 후보 자질이라는 측면에서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보다는 공화당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어려움을 높여주었다고 생각됨. 무엇보다도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과 함께 실제 정책에 있어서 분명한 비전과 메시지를 아직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그에 대한 지지가 향후 정책의 불확실성을 감수해야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선택임

## VI. 앞으로의 전망과 한국에의 시사점

- 연방제 국가인 미국이 갖고 있는 선거제도의 특성 그리고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정당지지성향의 지역적 편향으로 인해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접전주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의 차별성과 함께 접전주의 판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 보고서에서 살펴본 바, 현재 거명되고 있는 11개의 접전주에서 벌어지는 선거의 양상은 민주당 클린턴 후보가 우세한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음
- 또한 1차 후보토론에서는 후보의 자질과 정책의 구체성에서 민주당 클린턴이 공화당 트럼프보다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물론 선거가 다가올수록 본선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후보들 간의 이전투구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움
- 수세에 몰린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처한 어려움을 더욱 부각시키고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정치권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어필해야 하는데, 아직까지의 모습으로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고 있음. 결국 남은 기간 동안 공화당과 트럼프는 수권정당으로서 그리고 준비된 지도자로서 입지를 부각시키는 것이 큰 과제로 남음
- 만일 공화당과 트럼프가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실패한다면 현재의 판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임
-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클린턴 후보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동맹을 중시하는 클린턴 후보의 입장에 따라 한국이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서 가지는 전략적 가치를 어떻게 부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데, 대북 경색국면과 중국과의 채널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상황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협상의 지렛대는 그리 많지 않음

- 클린턴이 당선되어 민주당 행정부가 지속되더라도 경제적 그리고 안보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인 부담의 압박이 더해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협상의 지렛대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것임
- 북한 핵문제는 미국에게도 골칫거리인 만큼 단순히 제재강화를 넘어 이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방식을 능동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대선결과와 더불어 의회권력의 변화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음. 현재까지의 전망은 하원에서 공화당 우세가 지속될 것이지만 상원은 양당이 과반을 두고 접전을 벌이고 있음. 의회와 행정부가 정치권력을 반분하고 있는 미국정치의 현실에서 의회선거의 결과도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함



여의도연구원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정당 발전을 통한 새로운 정치문화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연포커스」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연포커스」의 전문을 [www.ydi.or.kr](http://www.ydi.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새누리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의도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22 기계산업진흥회 신관 3층  
전화: (02) 2070-3300 팩스: (02) 2070-3331 (우 07238)